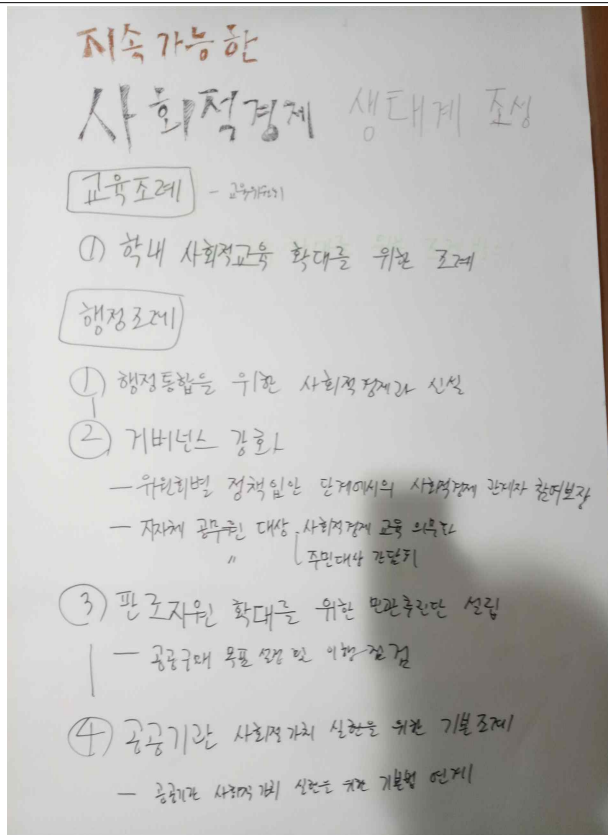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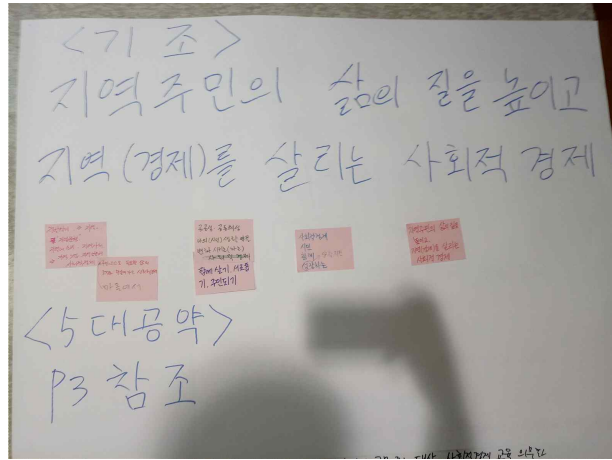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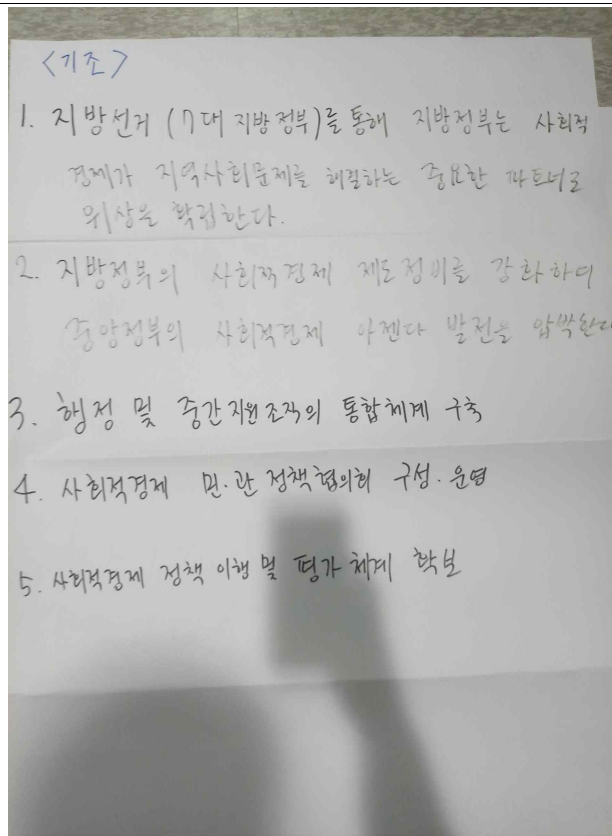
- 기초
- 양극화 시대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역과 삶, 미래로 연결하고 일상에 뿌리내리자
- <정책>
- ① 통합 민관 협의체 구성
 - 예산/계획 공동수립 및 평가
 - ② 교육 시스템 구축
 -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설립
 - 인재양성 지역별 계획 수립
 -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류
 - ③ 기금 조성
 - 지역 가치기금 조성
 - 새마을금고, 신협 등 연계
 - ④ 연구 강화
 - 지역사회적경제 연구-정책 기금 강화
 - 지역발전연구원 인력 확보
 - ⑤ 기본권 확립
 - 농촌·농업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기업 육성
 - 노령인구 노동권 보장 지원 사회적경제
 - ⑥ 기타
 - 사회적가치실현 조례 제정
 - 지방정부 예산 편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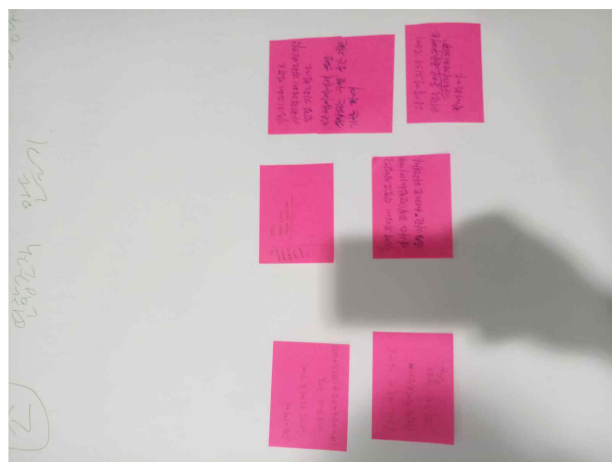
- 기초
-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
- <교육 조례>
- 학내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
- <행정 조례>
- ① 행정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신설
 - ② 거버넌스 강화
 - 위원회별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관계자 참여
 -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의무화
 - ③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민간추진단 설립
 -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
 - ④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



- 기 조
-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(경제)를 살리는 사회적경제
- <정책>
- 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역 공동체 복원
- ②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
- ③ 공공성에 기반한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회적경제
- ④ 시민이 함께 성장(양적 지원)하는 사회적경제
- ⑤ 내가 주인이 되는 사회적경제



- ① 지방선거(7개 지방 정부)를 통해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을 확립한다
- ②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 정비를 강화하여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아젠다 발전을 압박한다
- ③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체계 구축
- ④ 사회적경제 민·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
- ⑤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및 평가체계 확보



- ①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당사자조직(연합체)에 대한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한다
- ②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/민간협의체에게 우선 위탁되는 지원기관을 확대한다
- ③ 지역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구매를 확대한다
- ④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
- ⑤ 공공영역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수탁을 확대한다

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

- 사회적가치 확산 /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

1. 정책의 전달 및 행정 체계 구축
 - 사회적경제 정책관 설치 (지방정부)
2. 사회적가치의 확산
 - 책임도담 및 공공우선구매제도 (공공서비스 & 사회서비스의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)
3. 지역적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복지 증진
 -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금 조성
 - SIB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
 - 시민금융의 양극화 해소
4. 인재 육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(지역자원연계)
 - 초·중·고 교육 (교육연계) / 공동체교육 / 공무원교육
 - 대학·대학원 연계 (재교육)
5. 지방정부 주요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
 - 도시재생사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부여
 - 혁신 및 청년사업 연계 청년 역할 부여

<기초>

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

- 사회적가치 확산/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

① 정책의 전달 및 협의체계 구축

- 사회적경제 정책관 설치

② 지방정부 내 사회적가치의 확산

- 책임 조달 및 공공우선구매제도

(공공서비스&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)

③ 지역적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복지 증진

-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금 조성

- SIB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

- 시민금융의 양극화 해소

④ 인재육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(지역자원연계)

- 초·중·고 교육, 주민공동체 교육, 공무원 교육

- 대학·대학원 연계(재교육)

⑤ 지방정부 주요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

-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부여

- 혁신 읍면동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역할 부여